



편측성 난청

출처:



출처 안내



UHL 성공 지원



환자를 위한 팁



연구 결과

- 편측성 난청(UHL)은 어린이의 한쪽 귀에만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.
- 현재 출생 시 UHL 유병률 또는 발생률은 1,000명 중 약 1명입니다. 이 수치는 학령기 어린이의 경우 1,000명당 3~6명으로 증가합니다. 출생 시 검사로는 작고 미세한 청각 상실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(지정되지 않음) 시간이 흐를수록 청각 상실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.
- UHL 사례의 31~50%는 원인이 뚜렷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다른 원인으로 귀 기형이나 CMV(Cytomegalovirus,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) 감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.
- UHL의 범위는 경도 난청에서 심도 난청에 이릅니다(일측성 난청 또는 SSD로도 불림).
- 청력은 상실 원인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할 수 있습니다. UHL의 약 7~11%는 양쪽 귀의 난청으로 진행됩니다.
- 한쪽 귀에 청력 상실이 있는 어린이는 소리가 나는 위치를 파악하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집단 안에서 누가 말하는지 구분하는 것뿐 아니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
- UHL을 가진 아동은 배경음이 존재하는 경우 말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.
- 또한 듣기에 피로를 느끼며 이것이 하루 종일 어린이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.
- 과거에는 UHL이 있는 어린이는 귀가 '좋아서' 괜찮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개입이나 최소한의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- UHL이 있는 아동은 난청의 원인에 따라 보청기나 BAHA 착용 또는 달팽이관 이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학령기에 도달한 아동의 경우에는 더 크고 더 시끄러운 공간에서 도움이 되는 무선 마이크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UHL이 있는 모든 영아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난청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